



## 나팔관 미세 카테타 치료법

황경진 / 일산자생당 여성병원장

### 필

임크리닉에서 진료를 하다보니 매일 많은 불임환자들을 만나게 된다.

산부인과에 오는 여성들 중엔 체질적으로 너무나 임신이 잘되어 순간적인 피임방심으로든 혹은 임신이 아닌가 걱정을 하여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불임여성들처럼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정반대 되는 상황들을 보면 조물주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바를 골고루 나누어 갖게 해주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아기를 낳으며 잘 살아가고 싶다는 것은 모든 이의 가장 평범하고 인간적인 바람이다.

그러나 이 소박한 바람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겪어야 하는 어려움, 특히 여성측의 (사실은 모든 것이 여자의 책임이 아닌데도)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필자가 박여인을 처음 만난 것은 3년전 어느 가을 오후였다.

“교사인 저는 지금까지 남편에게 많은 것을 받기만 하고 아무런 보답도 해주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너무나 진지한 표정이었다. 첫 결혼에 실패한 박여인은 다섯 살 연하인 지금의 남편과 4년전 재혼을 했다.

연하의 총각과 연상의 이혼녀와의 결혼은 당연히 시댁의 드센 반대에 부딪혔지만 남편의 지극한 사랑으로 무사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결혼한 지 몇해가 지나도 아기가 없자 행여 두 번째의 행복도 깨져 버리지나 않을까 불안해지기 시작한 박 여인은 병원을 찾아 온 것이다.

두 달여에 걸친 검사 결과 양측 나팔관의 근위부가 완전히 막힌 것으로 판명되었다.

나팔관이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약 이곳이 막히거나 정상 기능을 못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임신이 안되고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해야 임신이 가능하다.

그런데 박 여인의 경우처럼 나팔관의 근위부가 막힌 경우에는 모니터로 보면서 머리카락 같이 가는 관을 넣어 뚫어보는 X-RAY촬영법이 있다.

잘 뚫리는 경우에는 수술이나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지도 않고 그냥 아기를 자연적으로 가질 수도 있으므로 한 번쯤은 시술 해볼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이다.

박 여인 말대로 조상님의 보살핌 덕분인지 막힌 난관 중 한쪽이 별 어려움 없이 뚫렸고 그 뒤 몇달간의 시도 끝에 정상적인 임신을 하게 되었다.

임신 진단을 받던 날 박 여인은 남편과 부둥켜 안고서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고 그녀 손을 잡고 달려든 나의 눈에도 어느덧 이슬이 맺혔다.

그해 연말 멀리 부산으로 이사갔던 박 여인에게서 한 장의 카드가 왔다.

“선생님, 딸아이의 이름을 선생님 이름으로 지었어요.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도록 잘 키우겠습니다.”

아,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한 필자도 이럴 때는 절로 용기가 난다.